

## 고넬료의 회심

사도행전 10: 1-48

사도 바울의 회심에 이어 고넬료의 회심은 목음이 유대와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증거 되기 위하여 아주 중요한 사건이다. 왜냐하면 고넬료는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회심을 했기 때문이다. 고넬료의 회심도 갑자기 회심한 것이 아니라 그가 복음을 받아 들이기 전에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결국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환상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름으로 베드로를 초청하여 복음을 듣고 이방인으로서 최초의 회심자가 된 것이다. 이 시간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넬료와 그 가족 친척, 친구들에게 전한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 첫째, 베드로는 예수님의 생애와 사역을 증거했다.

38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매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메시아로서의 그의 사역을 위해 성령의 능력을 부어 주셨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 주실 뿐 아니라 친히 함께하셔서 귀신을 쫓아 내시고 많은 기적을 행하신 것이다. 그런데 베드로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의 하신 모든 일을 친히 목격한 증인이라는 것이다.

### 둘째, 그 다음에는 그의 죽음을 증언한다.

39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에 증인이라 그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것은 영적인 신학적인 의미가 있다. 그들이 예수를 죽인 사실을 증거함으로 그들의 죄를 지적한 한편 그의 죽음이 의미한 바가 무엇인가를 말하고자 한다. “그를 그들이 그를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가? 그 의미를 우리는 갈라디에서 배울 수 있다.

갈라디아 3:13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 말씀을 통해서 그의 죽음의 의미를 신학적으로 이해 할 수 있다. 나무에 달린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를 받으셨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저주를 받으신 것이 아니고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다. 이처럼 십자가는 율법의 저주아래 있는 우리에게 진정한 기쁜 소식이다.

### 셋째, 부활을 증거했다.

40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시되

41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이 이처럼 예수를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신 것이 아니고 특별한 자들, 특히 그가 미리 택하신 사도들에게 나타나셨다. 사도들이 본 부활 채는 비록 놀랍게 형상이 바뀌고 영화 된 것이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고 형체를 지니고 있는 것이었으며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함께 하시고 그들과 함께 먹기도 하셨다. 예수님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중요한 사건 이상의 것이었다. 예수님의 부활은 세계적으로 선포하라고 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만유의 주가 되셨고(36) 만민의 심판자, 구세주가 되시기 때문이다.

또한 그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 하시기 위하여 다시 오실 분이라고 선포해야한 것이다.

이 예수님의 생애와 죽음과 부활 재림의 주를 바로 이해 하고 믿을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다 라는 말은 안종과 국적의 장벽을 무너 뜨린 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기만이 증거한 것이 아니고 모든 선지자, 곧 성경이 증거한다는 것이다(43). 항상 베드로는 어떤 진술(Statement)를 말할 때는 성경에서 그 진술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다(43).

베드로는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그분은 역사적 인물, 그분 안에서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구원을 주시기 위해 일하시는 분, 지금 신자들에게 구원과 심판으로부터 피할 길을 제공하시는 하나님임을 증거한 것이다. 이처럼 다른 설교에서와같이 역사와 신학과 복음이 다시 결합 되었다.

고넬료와 그 가족과 친척과 친구와 종들이 그 설교를 들었을 때, 그들은 베드로의 메시지를 깨닫고 마음이 활짝 열려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내려 오셨다(44). 그러자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대단히 놀랐다(45). 오순절 날 일어났던 일처럼 이방 사람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었기 때문이다(46). 그것은 오랫동안 언어의 차이로 관계가 멀어지고 그것이 굳어져 있었던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관계에 화해가 일어난 것이다. 이것을 묵상할 때 복음이 역사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지 모른다.

이처럼 도저히 하나 될 수 없었던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회복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가능했던 것이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증거된 곳에는 강력한 하나 됨의 역사가 일어난다.

내가 미국 유학시절, 조그마한 한인교회를 섬길 때 일이다. 조그만 도시에 한 가정의 가발가게를 운영하는데 꽤 장사가 잘되었다. 그런데 다른 한 가정의 그 가게 바로 앞에 똑같은 가게를 열었다. 피차 장사가 안되는 것은 뻔한 일이다. 그래서 두 가정의 관계는 좁힐 수 없는 관계로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을 때 두 가정의 회개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

베드로는 마땅히 세례를 베풀어야 한다고 하면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것은 자기의 결정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친히 하신 역사라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그래서 11장에서 할례자들이 베드로가 무할례자들의 집에 들어갔다고 비난하자 베드로는 그에게 일어난 자세한 설명을 한후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11:17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

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막겠느냐 하더라

드디어 공적으로 할례자들도 이방인도 한 가족으로 영접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11:18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우리는 다시 한번 복음은 어떤 인간의 장벽도 헐어 버릴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이 복음을 가졌다는 사실처럼 큰 축복이 어디있겠는가?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는 후 베드로는 그들과 함께 얼마를 머물게 된다.

10:48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베드로가 얼마동안 그들과 함께 머문 이유가 무엇일까? 새롭게 믿게 된 사람들은 믿음의 삶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다.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삶으로서의 훈련이 필요하다. 오늘날 교회가 복음만 전도하여 믿게 한 후 더 이상 그들을 훈련시키지 않는 것은 슬픈 일이다. 사람에게 따라서는 차이가 있겠지만 30이 넘어 믿는 사람도 있고 50 혹은 60이 넘어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그렇게 오랫동안 믿음 없이 살았던 사람이 막상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 된 것이다. 그런데 그런 새로운 삶의 방식을 가르쳐 주지 않는다면 믿은 후에도 50년 60년 동안 살았던 옛 습관 그대로 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분부하셨다.

마태복음 28:19-20

19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2)세례를 베풀고

20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제자로 삼아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하셨다. 교회가 이것을 소홀히 할 때 교회는 세상에서 웃음거리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가 적어도 주일 만큼은 철저한 성경 중심의 설교, 설교를 통한 목음선포와 가르침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뿐만 아니라 주일학교 교육이 절실히 필요하다. 주일학교란 청소년 주일학교만이 아니라 장년 주일 학교가 필요하고 또한 저녁 예배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철저한 교육이 있어야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을 때 세상이 교회를 깔보지 못한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만으로 만족하고 방치 해 두면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이 많이 있을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리스도인이 많고 그리할 때 주님의 이름은 더이상 증거될 수 없게 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누리는 특권을 누리고 살아야 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로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특권을 주신다. 그 특권이 무엇인지 그 특권을 누리는 삶이 무엇인지, 어떻게 그 특권을 누리고 사는 것인지 배워야 한다. 이와 같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른다. 이 말씀을 들으신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떤 특권을 누리고 살고 있는가? 그 특권을 누리기 위하여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가?